

전국 유일 레드푸드 페스티벌

장수군, '빨간 맛의 향연' 오늘 개막... 8일까지 다양한 먹거리·체험 등 진행

제18회 장수한우람사과람 축제가 'RED FOOD FESTIVAL'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장수읍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 일원에서 개최된다.

장수군은 레드푸드 페스티벌이 17년간 이어온 한우람사과람 축제의 전통을 이어받아 기존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한우와 사과에 집중했던 컨셉트를 오미자, 토마토 등 장수군의 다양한 레드푸드를 아우를 수 있도록 발전시켰다.

또한, 농·특산물 판매 중심의 축제에서 음식, 음료, 주류에 이르는 Food 분야로 확장해 '세계 최고의 먹거리 축제'로의 첫발을 내딛는다.

대표 레드푸드인 장수한우를 맛볼 수 있는 '장수한우마당'은 2,500석 규모로 운영되며 당도가 높고 맛과 향이 독특한 장수사과는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레드푸드존에서는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레드푸드를 활용한 식품을 맛볼 수 있고 레드푸드 요리 시연, 하이볼쇼 공



'RED FOOD FESTIVAL' 포스터

연 및 시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선보인다.

장수 누리파크에서는 '레드푸드 전국 가족요리 대전', '아빠와 함께 장수 토마토 스과게티 만들기' 등 레드푸드를 활용한 음식을 직접 요리하고 맛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축제장 메인무대에서는 5일 이찬원이 출연하는 레드열린음악회로 개막

을 알리고, 6일에는 레드 전복 락 페스티벌, 7일에는 래퍼 래원, 하이키, 브브걸 등이 펼치는 레드 콘서트, 8일에는 장민호, 인순이, 남진 등이 선보이는 레드 트롯페스티벌이 열린다.

특히, 폐막식에는 의암호를 가로지르는 수상 와이어 방식의 의암숲을 아우르는 나무 거치 방식의 낙화놀이와 화려하게 펼쳐지며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김홍기 축제추진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장수군과 지역의 고품질 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방문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전국 유일의 레드푸드 페스티벌 원년의 해로서 방문객들이 다양한 레드푸드 먹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며 "세계 최고의 먹거리 축제로 발돋움하는 레드푸드 페스티벌에 방문하셔서 장수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8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원의 날 행사가 지난 4일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가 한창인 무주 등나무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됐다.

전북자치도 문화인들 무주로!

제8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원의 날 행사 열려

제8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원의 날 행사가 지난 4일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가 한창인 무주 등나무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됐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회장 한병태)가 주최하고 무주문화원(원장 맹갑상)이 주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도내 문화원 간의 문화교류를 통해 역량을 키우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14개 시군 문화 가족 5백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순창문화원의 대취타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이 진행됐으며 전주문화원 김진돈 사무국장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사상을, 군산문화원 관병길 이사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상을, 익산문화원 배철환 대외협력행사위원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을 수상했다.

또 무주문화원 정우경 이사 외 3명이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을 받았으며 황인홍 무주군수 등 7명이 전북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장상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원의 날 행사가 반딧불축제 기간에 무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모조

록이 자리가 문화원 간 교류를 원활케 하는 계기, 서로의 역량을 키우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동력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각 시군에서 준비한 난타(진안)와 부채춤 & 창작군무(무주), 해금 & 아름다운 무용단(익산), 마술(김제), 장고민요(임실), 순가락 난타(고창), 살풀이춤(군산), 부채춤(장수), 레트로장구(완주), 밴드(정읍)를 공연한 등 문화공연이 눈길을 끌었으며 체험 부스에서는 가야지킴이시스템 & 수플활동 홍보(남원), 민화부채만들기(장수), 가운뎃주기(전주), 소원의 종만들기와 자연식물 키우기(진안), 선비문화체험-서책만들기와 선비문화체험-생략놀이(부안) 등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제8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원의 날 행사 후 참석자들은 살아있는 반딧불이를 비롯해 반딧불이의 생애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반디누리관을 비롯해 사진과 시화전, 라바전이 열리고 있는 무주상상반디숲, 최북미술관 등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장 곳곳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산골영화관, 작은영화관 기획전

6일까지 10편 영화 30회 상영

무주군은 오는 6일까지 '2024 작은영화관 기획전'이 개최(9.2.~)된다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무주산골영화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총 10편의 영화가 30회에 걸쳐 상영(무료 관람)된다.

9월 5일에 상영(14:10)하는 <플랜75>는 영화 상영 후 영화 토크가 진행된다. <플랜75>는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짚는 영화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이동훈 과장과 무주산골영화제 조지훈 프로그래머가 함께 "잘 늙는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토크를 이어갈 예정이다.

9월 6일 12시 30분부터는 <어른 김장하 제59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교양 작품상 수상>가 상영될 예정이다. 영화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며 지역사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한약사 김장하 선생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로 상영 후 김지현 감독과 인터뷰인 김주완 작가(전 경남도민일보 기자)가 참석해 관객과의 대화(GV)를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3시 20분부터는 선유도

공원과 여의도 셋강생태공원, 경춘선 숲길 등 한국적 경관의 미래를 그리는 조경가 정영선과 그가 만들어 내는 사계절은 다른 다큐멘터리 <땅에 쓰는 시>가 상영될 예정이다. 영화 상영 후에는 정다운 감독과 무주산골영화제 조지훈 프로그래머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돼 있다.

<막걸리가 알려줄거야 9. 5. / 6. 10:20>, <웅감한 골고래 벨부와 바닷속 친구들 9. 5. 12:30>도 상영된다.

무주군청 태권문화과 문화정책팀 임정희 팀장은 "기획전은 무주군민과 반딧불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8일까지 다양한 영화, 부대 프로그램과 함께 해보시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진안 포도 품평회 현장 행정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3일 관내 포도 시설 하우스와 유럽종 포도 품평회 현장을 찾아 진안 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진안군에서는 면적 약16ha에 사인머스켓, 캠벨, MBA 품목을 주로 재배하고 있다.

진안 친환경 포도 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품평회에서는 진안 맞춤형 유럽종 포도 재배시설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을 3년간 10.4억원(도비 0.9, 군비 9.5)을 투입해 유럽종 포도 하우스 2.5ha를 조성함에 따라 시설을 둘러보고, 사인머스켓, 뉴씨티, 베니바라드, 알렉산드리아, 함부르크, 허니버너스, 블랙사파이어, 슈튜벤, 캠벨, 주얼리머스켓 등 10종의 포도의 특성 설명과

시식 기회가 제공됐다.

품평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청포도 뉴씨티와 적포도 '베니바라드' 품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전춘성 군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농가들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한 품종을 육성 지원할 계획"이라며, "품평회를 통해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품질 좋은 고급스러운 포도를 만들고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시설, 판로, 교육 등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추석 명절맞이 '장수가꿈드림' 300세트 전달

장수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장수군에서 생산·가공한 농산물과 식품으로 꾸러진 '장수가꿈드림' 300세트 전달식을 4일 진행했다.

'장수가꿈드림'은 장수군에 기부된 소중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장수군에서 생산한 잡곡, 사과 등 농산물과 장수한우곰탕, 장수한우육개장 등 가공식품 10종의 먹거리 세트(10만 원 상당)로 구성됐다.

장수군은 2020년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먹거리 나눔 사업(행복꾸러미)을 추진해왔다. 올해



부터는 이 사업을 한층 발전시켜 새로운 먹거리 꾸러미인 '장수가꿈드림'을 전달한다. '장수가꿈드림'은 지역 농가와 업체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구성돼 지역 농가와 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동시에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안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격 가동

진안군은 관내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신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3일에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농업인 단체장,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사업소 신축에 따른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

진안 관내에서 6번째로 문을 연 안천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총 1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안천면 백화리 2.44㎡의 부지에 참고시설과 사무실을 갖추었다.

안천면 임대사업소는 농업인 활용도가 높은 트랙터, 수확기 등 35종 64대의 농기계를 구비하여 안천면 농업인들의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고, 지역 농가들의 임대 농기계 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전춘성 군수는 "안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으로 지역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작업 부담이 덜어질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정기재물조사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진안군 4월 군청 회의실에서 관내 물품 담당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물품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를 대비해 물품관리 실태를 점검해 보고 그에 따른 관리 방법에 대해 인지 시키기 위해 열렸다.

정기재물조사는 보유 물품에 대한 수량·상태·위치 등 일정 시점 동시조사로 재물 통계 분석 및 재물 조정으로 물품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물품담당 전문 교육 강사를 초빙해 완성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로 진안군 물품관리가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